

다구를 찾아서

8 대관다론



이로움 · 해로움은 부리에 달려있다

북송 휘종(徽宗, 1082~1135)만큼 사람들로 부터 극단적인 평가를 받았던 군주는 드물다. 누구보다도 차를 사랑했던 그는 뛰어난 화가이자 예술품 애호가였다. 반면 휘종은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황음무도(荒淫無道)했다는 군주로 평가받기도 했다. 명대의 소설 <수호지>에서 묘사된 휘종은 향락을 탐닉하고 채경, 동관, 양사성, 이인, 주면 같은 간적(奸賊)을 등용해 정권을 전횡하도록 내버려둬 부패가 극에 달하게 됐다. 이는 천하를 혼란케 한 군주라고 평가받게 한 연유이다.

한편 휘종이 그린 화조도(花鳥圖)는 신품(神品)이라는 칭송을 받을 만큼 예술성이 높아서 중국미술사에 확고한 지위를 얻었다. 그는 전국의 명화와 골동품을 수집했고, 화원(畫院)을 만들어 그림에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등, 예술을 장려해 중국 미술사상 '선화시대(宣和時代)'라는 황금기를 이루기도 했다. 휘종은 채경을 통해 차의 전매제도를 공고히 했다. 이는 그가 차에 대한 애호와 품격에 대한 이해자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그가 차의 이론서인 <대관다론(大觀茶論)>을 저술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대관다론>에는 차나무의 생육 조건, 채다 시점, 채다 과정, 차의 감별, 점다(點茶) 도구와 점다 방법 등 20편으로 구성돼 있다. 그의 점다법은 다색(茶色)의 완성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백색의 다발(茶沫)을 완성(玩賞)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점다의 일곱 단계를 살펴보면 대략 이렇다. 첫 번째, 잔의 가장자리에 물을 부어가면서 차와 탕수가 잘 섞이도록 격발(擊拂)한다. 두 번째, 격발된 차거품이 움지이지 않도록 하면서 탕수를 잔에 따른다. 세 번째, 격발을 점다 가법고 균등히 더해 차거품이 더 잘 풀리게 한다. 네 번째, 탕수를 더하고 차선을 부드럽게 돌려서 차거품이 환하게 일어나 운무가 생긴다. 다섯 번째, 차거품의 상태를 보아 격발을 더하든지 아니면 그친다. 여섯 번째, 차거품이 문개문개 피어나면 격발을 그친다. 마지막으로 차거품을 균등하게 나눠 마신다. 각각의 단계마다 휘종은 격발하는 손의 모양과 힘의 강약, 다선의 움직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격발 단계마다 정면점(靜面點), 일발점(一發點), 교잔(皎盞) 등의 명칭을 부여해 말발이 피어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은

그의 예술적인 완성미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말발을 피우기 위해서는 탕수를 따르는 다구가 필요하다.

<대관다론>에는 이것을 병(鉞)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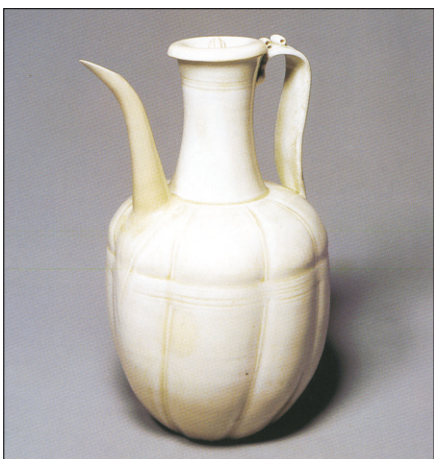
"병의 재료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 좋다. 크기와 작기는 알맞게 정하는 것이 좋다. 탕수를 따를 때의 이로움과 해로움은 오직 병의 부리에 달려 있다. 부리의 입이 약간 크고 구부정하고도 곧으면 탕수를 따를 때 힘차고 팽팽해 흠어지는 일이 없다. 부리의 끝은 둥글고도 작으며 씩둑 잘라내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은 탕수를 사용할 때 수량을 알맞게 조절하고 들방울도 똑똑 떨어지지 않는다. 대개 탕수가 힘차고 팽팽하면 빨리 쏟아내고 딱 멈출 수가 없다.

들방울이 똑똑 떨어지지 않으면 찻물의 표면이 갈라지지 않는다(鉞宜金銀小大之制惟所裁給注湯利獨瓶之口嘴而已嘴之口差大而宛直則注湯力緊而不散嘩之末欲圓小而峻削則用湯有節而不滴蓋湯力緊則發速有節不滴蓋則茶面不破一金明培養。)"

휘종의 설명에 의하면 병은 주자(注子)를 가리키는 듯하다. 주자는 몸체, 손잡이, 주구(注口, 부리), 뚜껑으로 이뤄져 있어서 물을 따를 때 정밀한 물의 양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주자는 처음 제작된 때부터 단일 명칭으로 부르지 않고 주구(酒具)나 생활용기로 이용되면서 여러 가지 기형 또는 답는 내용물에 따라 이름이 달라졌다. 주자라는 명칭은 명대부터 사용됐다. 한국에서는 주주(酒注), 수주(水注), 관주(灌注), 주자(注子)라고 부른다. 한편 주자는 당대의 그림 속에서도 등장하고 송대에는 많은 요(窯)에서 생산되기도 했다. 금과 은으로 만든 주자의 경우는 술이나 차 혹은 물을 데우는데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자기로 만든 주자는 승반(承盞)과 함께 한 조로 제작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제사나 연회에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승반이 있는 것은 보온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유물로 남아있는 주자의 경우 주구(酒具)로 이용되거나 혹은 다구(茶具)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들에 대한 구별은 명확치 않다.

백기란 bdaol@hanmail.net 동아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북송 청백자다병(北宋 靑白瓷茶瓶).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東京國立博物館所藏). 높이 28.3cm 입지름 6.0cm 바닥지름 6.2cm.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29 해인사 적목련



봄인 듯, 봄인 듯하면서 아직 쌀쌀한 날이 남아 있다. 하지만 마음속엔 이미 봄이 들어앉아 있어 생각과 행동은 봄이다. 옷도 겨울옷은 이미 마음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한 번 꽃을 본 마음속에는 아직 피지도 않은 꽃들이 손서도 없이 피어난다. 한 뼘도 안 되는 마음이 변화무쌍하다.

해인사 대적광전 아래 화단에는 아담한 적목련이 한 그루 있다. 꽃은 아직 피지 않았을 것이다. 찾아낸 지난 사진 속에서 적목련이 활짝 피어있다. 목련이 피면 봄도 가야 한다. 목련이 질 때에는 이 마음을 또 어쩔까. 목련은 피지도 않았는데 생각만 피어난다.

옛 판화의 세계

북망산행이란 글을 짓다 (北望山行)

이 삽화는 송나라 때 석법천 스님의 '북망산행'이란 글을 판각한 작품이다. 그림의 하단은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모습과 상단에는 의로이 산소만 남아 있는 모습을 표현해 인생의 무상함을 잘 나타냈다. 송나라 때 스님인 석법천(釋法泉)은 어린 나이 때 많은 서적을 널리 열람했고, 선지식을 두루 참문해 현오한 기를 슬기롭게 깨달아 북망산행이란 글을 지었다. 북망산은 중국 하남성 낙양 북쪽에 있는 산으로, 옛날의 왕후나 공경들의 무덤이 많이 있다. 북망산은 무덤이 많은 곳.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세워 묘문에 머물게 해 죽은 사람 위해 긴 세월의 계획으로 삼고자 해도 흔뻑은 멀리 하늘로 올라가고 형체는 흙으로 변한다. 낙양성 안 1000만 사람들이! 끝내는 북망산 아래 먼지가 되느니라. 혼침하고 헛갈려 돌아갈 때의 길 잘 기억하지 못하니 그대 위해 의로이 남아 길이 신고함을 슬퍼한다. 옛날에 사람 보며 긴 길에서 울었는데, 그 사람 문헌 의로운 무덤 방초 위에 누워 있어 요망한 여우 구멍 뚫어 지손 갈무리하고, 발가는 사람 뼈 파내며 구슬 보배 찾는다. 늙은 나무엔 쓸쓸히 들머리 생겨나고 동서에서 허물어진 무덤 개인 하늘에 이어졌다. 한식날도 이미 지났으니 누가 제사 모시겠느냐? 무덤가에 남은 꽃 적막하게 붉구나. 해와 달이 서로 재촉함이 흐르는 화살과 같고 가난한 이나 부자나 현명하고 어리석은 사람 모두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함께 항상 즐거운 고을에서 노닐 수 있겠는가? 설사 검화를 겪는다 해도 그곳엔 생사 윤회가 없느니라"고 적고 있다.

법천 스님이 지은 '북망산행'에는 "세간의 어떤 물건 큰고 단단할 수 있겠는가? 큰바다 수미산도 마지막엔 마멸된다. 인생이란 문득 쉽게 별에 마르는 이슬과 같이 종래부터 만나는 일 없으면 끝내 기별하는 것이 괴로움 즐거움 슬픈 느낌 잠시도 그만두는 일 없는데, 하물며 다시 100년이란 세월을 꿈속에서 달리는 데 놀란다. 가는 사람 멀고 멀어 다시 오지 않고 지금 사람 옛 사람의 뜻 알지 못한다. 소나무 심고 비석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고관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북망산행(北望山行).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선칠용맹 정진 안내

1. 권 선칠용맹정진 (19시간 정진)
 2. 권 선칠가행정진 (14시간 정진)

◆ 결제 : 2010년 4월 18일 일요일 오후 7시
 ◆ 해제 : 2010년 4월 25일 일요일 오전 6시

선칠수행도량
묘실상선원
 대전시 동구 중동 47-18
 ☎ 042)585-0778

수제화 고무신코만행화

최고의 선물

특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진회색

특무명 3목
 • 가격: 120,000원
 • 규격: 220-280mm (5mm단위)
 • 색상: 진회색, 검정

조각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자연색

조각무명 3목
 • 가격: 120,000원
 • 규격: 220-280mm (5mm단위)
 • 색상: 회색

지압동갈창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3-1밴드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85mm
 • 색상: 검정, 회색

사계절단화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3-1끈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85mm
 • 색상: 검정, 회색

망사단화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지압동갈창
 • 가격: 20,000원
 • 사이즈: 230-280

■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64형으로 나누어서 본 나의 체질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나의 체질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 차를 알고먹어야 병을 만들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마의 사상의학공부를 40년 넘게 하면서 손등의 피부를 만져보면 정확한 체질을 알려드리오니 시간을 꼭 내서 만나보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병은 무엇이며 현재 병증은 왜 있는지를 체질을 알면 다 알수있기에 궁금하신 분,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 분은 찾아주세요

현재 병증이 나오면 한약치료 처방을 해주는데 드셔보면 5일 안에 변화를 본인이 느낍니다.

아토피 피부병은 바로완치됩니다.

스님들께는 건강한 몸으로 수행하시라고 모든 특혜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0-9373-3778